



중국 베이징 탄소 거래소 운영현황

베이징올림픽 개막과 동시에 개소



베이징 탄소 거래소(China Beijing Environmental Exchange, 이하 베이징 거래소)는 중국 최초로 2008년 8월 5일 설립되었다. 거래소가 2008년에 세워지게 된 것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관계가 깊다. 당시 중국 정부는 녹지 조성, 공기정화, 에너지절약 등 모든 역량을 기울여 “그린 올림픽” 개최를 위해 노력했다. 베이징 시정부는 올림픽을 계기로 진정한 ‘그린 베이징’으로 발전하고자 올림픽 개막(2008.8.8) 3일 전을 베이징 거래소의 개소일로 결정했다.

탄소 거래소 설립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시장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GDP당 배출량 기준) 가량 감축할 계획이다.

베이징 탄소 거래소의 주주는 총 4개 기관으로, 최대 주주는 베이징 재산권 거래소(北京産權交易所)이다. 베이징재산권거래소는 기업재산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권리를 거래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으로, 2009년 거래대금이 1,269억 위안(약 21조 5,700억원)에 달한다. 탄소 거래소는 재산권 거래소의 경영 노하우 및 거래기법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현재 베이징 재산권 시장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다.

베이징 재산권 거래소



현재 약 50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베이징 거래소의 주요 기능은 크게 중국·외국 기업 간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

호기술 교역 지원, 베이징 시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시스템 구축, CDM 프로젝트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아직 제도나 거래 기준이 완비되어 있지 않고 참여 기업이 많지 않아 초보적인 단계의 정보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개소 1년 반... 성과와 한계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는 하지만, 베이징 거래소는 2년간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일구어 냈다. 특히 중국 내 탄소시장 기반 다지기와 국제 시장에서의 중국 위상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자발적 탄소거래시스템의 발전이다. 2009년 8월 5일, 베이징 거래소 설립 1주년이 되는 날 중국 최초의 자발적 탄소 배출권 매매사태가 탄생했다. 텐핑자동차보험주식회사(天平自動車保險株式會社)는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 베이징 시에서 감축한 8,026톤의 탄소배출권(27만 8천 위안)을 구매, 2004~2008년 기간 중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상쇄하는데 사용했다. 텐핑 보험은 2010년에도 후난동평(湖南東坪)수력발전프로젝트에서 감축한 1,428톤(5만 위안)의 배출권을 추가 구매하기도 했다.

베이징 거래소는 프랑스의 탄소거래소인 BlueNext 와 함께 2009년 자발적 탄소 거래 표준인 팬더 스탠다드(Panda Standard)도 내놨다. 이후 상하이, 텐진 거래소에서도 탄소 시장 관련 표준을 경쟁적으로 제정하는 등 베이징 거래소는 중국 내 탄소시장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자발적 탄소거래 표준은 14개이며,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Voluntary Carbon Standard이다.

자발적 시장은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대형화되기 어려워 탄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에도 미치지 않는 실정이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점진적으로 국제 탄소시장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스템이 자발적 시장이라고 판단,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 : 바이두

한편, 베이징 거래소는 타국 거래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활동 범위를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BlueNext(프랑스), The Financial and Energy Exchange Group(호주), 에너지관리공단(한국)이 현재 베이징 거래소의 해외파트너다.

베이징 거래소의 해외파트너다.

베이징 탄소거래소는 중국 정부의 저탄소 시범도시 정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0년 8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총 13개 성시(省市)를 저탄소 시범도시로 선정하였는데, 베이징 거래소는 시범지역에서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러 의미 있는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거래소가 걸어야 할 길은 아직 멀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거래량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탄소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배출권 공급자, 중개기관, 최종 수요자가 활발히 교류해야 하는데, 중국에는 CDM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탄소배출권 공급자는 많지만, 구매자가 거의 없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매자가 없으니 배출권을 내놓는 공급자도 점점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시장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운영 방향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거래소 민더윈(敏德文) 소장은 베이징 환경 교역소의 밝은 미래를 자신하고 있다. 30년 전 개혁개방의 시발점이 되었던 안후이성의 샤오강촌(小崗村)처럼 베이징 거래소가 전환국면을 맞이한 중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향후 베이징 거래소는 탄소금융시장 형성, 자발적 탄소거래 시장 육성, 파이낸싱 기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베이징 거래소는 그동안 CDM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탄소시장을 보다 업그레이드 하여 탄소 금융시장을 육성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2010년 중국 탄소배출권 시장규모(450억 달러)가 전 세계(1,500억 달러)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국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의 양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실제로 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배출권을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상품화 할 수 있는 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기업이 감축한 대량의 탄소배출권은 선진국의 금융기관에 저가로 팔려나간 뒤 고가의 금융상품으로 재상품화되어 국제

파생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중국의 금융 기관들을 끌어들여 중국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을 중국 시장에 되파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 선진국이 중국에서 원재료 또는 초벌가공 제품을 구입해 재가공한 뒤 중국에 고가로 되파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며 개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발적 탄소 거래시장 정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자발적 시장의 표준을 제정하고, 전자거래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다방면에서 발전을 이룩해 왔지만 쿼터제도, 거래체계, 거래시스템, 결산제도, 시장감독 관리체제 등을 정비해 많은 기업들이 국제탄소거래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던 계획이다. 중앙정부에서도 12차 5개년 계획기간(2011-2015) 중 기업 간 배출권 거래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어서, 베이징 거래소의 노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 지원 강화도 베이징 거래소의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다. 좋은 프로젝트임에도 자금 부족으로 사장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첫 발걸음으로 베이징 거래소는 2010년 5월 중국에너지절약협회와 함께 세계 최초로 “에너지관리 금융거래 플랫폼”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중국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들은 파이낸싱 능력이 부족해 그동안 프로젝트 수주 및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09년 중국 ESCO수는 전국에 502개에 달하지만, 이 중 연간 매출액이 10억 위안 이상인 기업은 10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떤 베이징 거래소의 발자취는 탄소거래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베이징 거래소의 성공사례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탄소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한·중·일 3국간 동북아 탄소금융 허브 경쟁²⁾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K**

1)1978년 12월, 안후이성 샤오강촌의 18가구 대표들은 당시 균등생산, 균등분배 제도가 빈곤의 원인이란 판단, 각 가구가 일정 농지를 분할해 생산을 책임진 뒤 국가 납부량을 제외한 잉여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계약을 맺음. 개인의 의욕과 적극성이 살아나면서 샤오강촌은 1년 후 대풍작을 거뒀고, 이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덩샤오핑은 80년 담화에서 샤오강촌의 혁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모든 농촌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도록 공식 통보함.

2)현재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 탄소거래소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협력과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배출권 공급자인 중국과 거대 수요자인 일본, 공급과 수요국으로서의 양면성을 모두 지닌 한국 간 협력의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각국은 동아시아 탄소거래소를 자국에 유치해 궁극적으로 홍콩과 같은 금융허브로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